



태백산 산행기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최영환
(051)469-0525~6 cyh@katre.re.kr

산자락과 계곡에 남아 있는 잔설의 반 얼음길을 저려 밟으며 난해한 음악의 원칙없는 박자에 맞춰 춤추듯이 걷는 산길. 남은 겨울의 정취 속에 엉덩방아 자국을 눈 위에 남기며 가는 재미가 잔설산행의 묘미인가. 겨울의 잔여 속 산행길은 조금은 아슬아슬하지만, 그 만큼 추억거리가 풍성하다.

청량리역. 통일호. 3월 7일 밤 10시. 구절리행. 우리는 간다. 무박 이틀. 태백산으로 - 그네들 잠들어 있는 이밤에 밤을 밝혀 오야(午夜)의 철길을 달려간다.

태백역. 세시 서든점.

역사(驛舍)의 네온이 함초롬히 안개에 젖은 듯하다. 신중도시의 초봄 이른 새벽. 싸아한 산골바람이 어둠의 저 골짜기에서 밀려온다. 마치 아직도 남아있는 어제 내가 있던 그곳의 오염됨을 씻어내리려는 듯. 가슴 가득 청아한 공기를 쏘아 안으려고 크게 기지개 한 번.

12인승 봉고에 열다섯이 제여 새벽길 달리길 이십여분. 태백산장.

옛날 된장의 찌개향기에 산채나물의 풋풋함이 고향인심과 어우러졌다. 과식하지 않은 일행이 없을

정도로 실락진 새벽 조찬.

나른히 밀려오는 졸음을 떨치며 태백산장을 떠난 시각은 묘시의 시작.

태백산관리사무소의 외등이 조는 듯 새벽 안개 속에 아스라하게 우리를 맞이한다. 이를 뒤로하고 우마차길을 따라 산행은 시작되었다. 철축의 새벽길을 헤드랜턴에 의지하며 산행을 시작하길 한시간여. 얼음반, 눈반의 가파른 길을 역갈지자로 기다시피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허벅지에 빠근함이 전해올 즈음 중간고개 삼거리길. 희뭉하게 태백의 준령들이 여명의 빛에 그 수려한 감춰진 곡선미의 실루엣을 드러낸다.

KATRI 파이팅! 우리의 의기를 산자락에 울리며 - 메아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 유일사로 향하는 이정표를 지나 우리 십오인은 간다. 장군봉을 향하여. 아침을 여는 새벽의 침병처럼.

유일사(維一寺).

추녀에 메달려 울리는 해맑은 풍경소리는 이제 세속을 떠나 선계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듯하다. 천애의 절벽에 안기듯이 앉아 있는 단아한 천년의 수도 도장. 지나는 등산객의 불한잔 청함에 두양동이



가득 물을 길어 마가지 떨어 내이온 새벽 산사 보
 사님의 그 넉넉한 인심은 이것이 자비이고 부처님
 의 배움이던가. 운무 자욱이 피어오르는 말아래 정
 정한 세풍을 굽어보며 앞을같이 찬 약수 한잔. 세
 파에 써든 폐부를 맘껏 씻어내리는 듯하다. 수봉
 에 하나 가득 약수를 채우고 번뇌를 버리며 백관개
 단을 오르듯 유일사 갈림길 쉼터에 다시 올라 본격
 적으로 산행을 시작되었다. 저만큼 장군봉은 보이
 고.

아자아자! 하늘 외마디와 함께 꼭예하듯 걷던 이
 부성의 영녕이 터지는 소리 참! 태백산 지형에 변
 화는 없었는지, 나는 몰라.

예상외로 안정감있게 산행을 주도하며 나를 앞세
 우신 영감님의 한 말씀, “역시 이부장답게 활기차
 긴 한데, 조심해” 이긴 진한 애정표현이야? 무관심
 이야? 영 아리송하네.

천년의 풍석속에 끈질긴 생명력을 지켜오며 그
 고난의 자태를 그대로 간직한 주목군락지에 닿았
 다. 이런 곳에서는 사진 몇 컷은 필수요건이더라.
 때 맞춰 동해의 운무사이로 붉게 태양은 떠오르고,
 돌판이 사진기사 조선생의 몇 번에 걸친 하나, 둘,
 셋, 김치 - 이가 있는 뒤, 새콤한 갈하다 나누니 산
 오름의 힘겨움에 헉헉대던 몇몇의 허영게 땀에 젖
 은 얼굴에 생기가 돈다.

몇가닥 날지 않은 머리카락 덕분에 내 모자를 밧
 어 쓴 한부장의 모자벗은 머리에 김오름이 기질조
 음, 그래도 간다. 우리는, 당관을 향하여 - 저 양반
 땀에 질은 내모자 세탁해 줄는지 모르겠네.

장군봉. 해발 1,568m.

장중하고 남성다운 중후한 웅장함과 포용력을 가
 졌다는 태백의 주봉, 밀려오는 계절의 화사함을 시
 썬하듯 산아래서 끓어오르는 료세 바람은 매섭기
 도 하지만,

옷깃을 다시 이끼는 저들의 얼굴엔 그래도 정상을
 정복하였다는 희열이 가득하다. 약적으로 쌓아올
 린 재단 앞에서 크게 심호흡 한번.

말아래 자욱히 깔린 운무 속에 간간히 솟은 태백의
 준봉들을 조망하며 용지랄 가쳐본다. 해와 신의 정
 기를 받으며 -

가자, 나라의 분일이 있을 때마다 태양의 무궁한
 힘으로 청화를 밝히는 천제단으로!

천제단. 단군할아버지 모신 한배단에 꾸며 고
 계속여 에 한번 올림을 시산제로 대신하고 그분의
 톨 뜻과 의미를 되새겨 본다.

太白山, 크고 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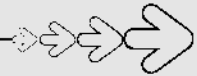
화강암에 새겨진 태백산 지표를 부르고 아스라
 이 보이는 문수봉을 향하여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선화 된 산등성이를 정복의 희열을 안고 등산화
 K2 이신생의 신도로 우리는 간다. 오를 때와는 다
 르게 이저는 내가 후미에서 일행을 밀어야 한다.
 누구라 밧힐 수는 없지만, 누구누구는 희희낙이 아
 니라 숫제 거품을 뿜는다. 누구냐?
 조금 있어봐 다 알게돼.

어쿠, 아자자가 몇 번이던가, 그래도 문위이기에
 망징이지 진흙길이었다면 어땠을까. 그저 상상되
 네.

드디어 태백산행의 마지막 봉우리 문수봉아래 갈
 림길. 이정표에는 바로 가면 문수봉 오름길,
 우측으로 가면 금천리로 향하는 내리막길.

문수봉을 우회하는 길은 5년 휴식년제에 들어 폐
 쇠, 권무장은 완전히 그로기직 전, 무조건 하산길로
 가겠네.

그 길은 태백보다 강릉이 가까운 길.
 그냥 가도록 들길, 금천리 방향으로 동조하고 나선



이부장, 한진생.

이제 알았지. 앞의 그늘이 누군지.

다수의 산행 중 길 찾는데 약간 안팎이 있는 본인.
분수봉으로 가자고 권했지. 그래도 그늘 의지는 강
하데.

분수봉 정상.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하산길이니,
저분 셋이 한발.

분수봉 정상은 마위가 깔려 있는 너털지대다. 정성
들어 쌓아올린 돌탑아래 밟서 도착한 영감께서 나
눠주는 사과한쪽은 힘겨워 후작한 일행의 소진된
기력에 힘을 넣는 책임자로서의 애정인가. 내가 차
고 있는 수통의 유일사 약수도 이곳에서 바닥이 났

다. 잔설의 밟힘에 보드득임의 경계함에 내리박긴
의 다소 수월함이 너하여 집인가. 언 계곡을 건너
고 뛰며 눈길 하산의 어려움을 일행의 영닝이로 느
끼며, 당굴에 닿았다. 열시 삼십분.

청경의 북급수에서 자라는 송어. 청남회관 송어회.
산행 끝의 뉘뉘이로시 맥미일지라. 그 맛 잊을 수
없으리라.

서울행 우등열차. 산행의 노곤함에 깜박. 태백의
신녀와 노니는 신경의 화원에 웬 괴성. 피땀 눈물
뿜다.

청량리 내려!! 그 사람. 이부장. **표준**

